

또 최대 비엔날레에 예술감독 희망자가 없다?

2인제 감독 후보자들 잇단 고사

광주비엔날레 내·외국인 공동감독 선출이 3개월째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감독선정소위원회가 선정한 내·외국인 인사들이 감독 후보를 고사하는 상황이 2차례나 되풀이됨에 따라 당초 3월로 예정됐던 비엔날레 감독선출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광주비엔날레 개막 차질 우려



광주비엔날레 내·외국인 공동감독 선출 작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내년 광주비엔날레 개최 일정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제6회 비엔날레가 열린던 전시관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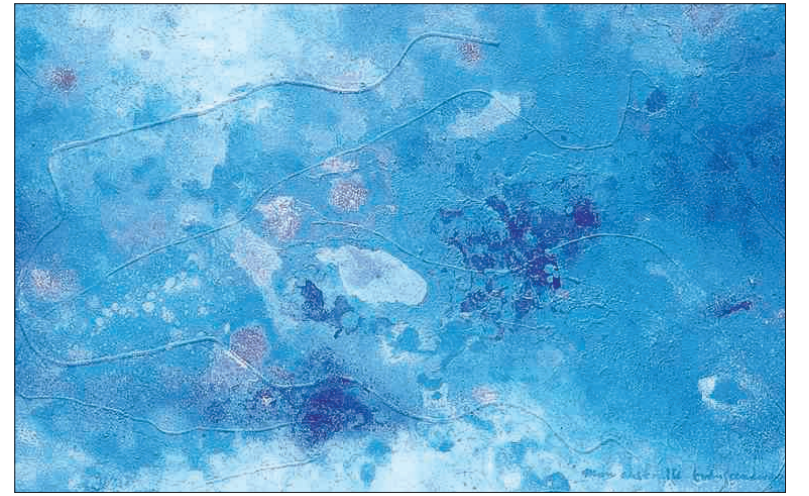
지명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선정소위원회는 27일 열리는 회의에서 감독 후보 물망에 오른 또 다른 인사를 국내 감독 후보로 직접 선택하고 싶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이 A씨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자 A씨는 스스로 후보

조인호 비엔날레 전시부장은 "감독 후보를 선정할 땐 나중에 후보 수락 여부를 타진하는 점 때문에 후보를 고사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신중하게 감독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일 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문화계에서는 감독 선출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내년 비엔날레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지원 광주전남 문화연대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광주비엔날레 감독은 4월 안에 선임돼 5월에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 등 현장을 체험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왔다"며 "감독 선임이 늦어짐에 따라 이번 감독은 해외 비엔날레 경향을 점검하고 미술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선정소위원회가 감독 후보를 압축해 놓고도 공식적으로 명단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공개적인 후보검증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나는 어디에... 깊은 명상의 세계로

최향 '나의 초월적 추상'展 30일까지 나인갤러리

명상과 내적인 평화를 화폭에 담은 최향씨가 '나의 초월적 추상'을 주제로 30일까지 예술의 거리 나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올해 9회째 개인전을 갖는 최향씨는 기존 기하학적인 구도에서 벗어나 형태, 색채, 재료를 새롭게 배치, 대칭과 균형미를 추구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나의 초월적 추상' 연작은 확연하고 뚜렷한 색상 보다는 모호한 듯 하면서도 넓은 채색을 채택함으로써 관람객을 깊은 명상의 세계로 이끈다. '감성적 추상' 작업을 해오던 그는 실과 모래 등 오브제와 색채를 통해 화면에서 물결문양과 파도 등 형태를 만드는 작업을 추구했다. 화폭에서 흰 줄처럼 도드라져 보이는 실은 가나



'나의 초월적 추상'

인생 여정을 상징하는 오브제다. 최씨는 "무언가에 집착하는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을 캔버스에 담았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홍익대 미술대학을 졸업, 한일국제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지 윈스턴 광주 공연 2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서정적인 멜로디의 음악을 선사하는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이 광주 무대에 선다. 24일 오후 5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가장 자연을 닮은 피아니스트'로 꼽히는 조지 윈스턴은 1995년 발표한 'Forest' 음반으로 그래미상 '최우수 뉴에이지 음반'을 수상하는 등 모두 6개의 앨범을 미국 빌보드 차트에 랭크시키는 등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곡가다. 특히 'Thanksgiving'이 수록된 'December'를 비롯, 'Summer' 등 계절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계절 연작 시리즈는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아 조지 윈스턴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중 한명으로 각인시켰다. '샘머 콘서트'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Rain', 'Woods', 'Cat & mouse', 'Memories of you', 'Harmonica piece', 'Riders on the storm' 등 여명의 서정성이 담긴 곡과 지난 2006년에 발매한 앨범 'Gulf coast blues & impressions' 수록곡들을 들려준다. VIP 7만7천원,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소남 콘서트

25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국소남씨의 36번째 콘서트가 2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국씨는 이번 콘서트에서 '보고 싶은 얼굴',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You are so beautiful', 'Mother' 등 인기가요와 팝송을 선사한다. 특히 직접 글과 곡을 붙인 '당신을 거기에 두고', '가사를 쓴 '푸른 허공', '호숫가에서' 등 창작곡도 들려줄 예정이다. 소프라노 류은미씨와 포크 가수 기현수씨가 찬조출연, '마지막 잎새',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등을 들려주며 허브 앙상블, 광주필협 오케스트라, CNS금관5중주단, 아나미여성 앙상블 등이 함께 무대에 선다. 문의 016-9666-338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예술단체 기관장 연봉 7,000만원대

'알리오시스템' 조사...직원평균 임금은 3,000만원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예술단체의 기관장 연봉이 대체로 7천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공기업 직원들의 평균 연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직원들(단원포함)의 평균임금은 3천만원대로 다른 공공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담은 '알리오시스템'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예술단체·공공기관들의 작년도 임금 수준이 이렇게 나타났다. 작년도 국립발레단장 연봉은 7천232만원으로 전년의 7천74만원보다 2.2% 올라갔고 국립오페라단장은 7천196만원에서 7천556만원으로 5.0% 상승했다. 서울예술단장은 7천800만원에서 7천740만원으로 내려갔고 국립합창단장은 7천232만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정동국장장은 8천616만원에서 8천142만원으로 떨어졌고 예술의전당 사장은 9천346만원에서 1억438만원으로 올라갔다. 또 직원들(단원포함)의 평균임금을 보면, 국립발레단은 3천41만원으로 전년의 2천695만원보다 12.8% 상승했으며 국립오페라단은 3천226만원에서 3천484만원으로 8.0% 올라갔다. 국립합창단은 3천149만원에서 3천189만원으로, 서울예술단은 2천850만원에서 3천124만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정동국장은 전년과 비슷한 3천425만원이었다. /연합뉴스

'부조같은 회화' 박수룡 개인전

29일~7월7일까지 서울 박영덕화랑

광주 출신 서양화가 박수룡(52·조선대 졸업·사진)씨가 29~다음달 7일까지 서울 박영덕 화랑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씨는 합판 위에 유화물감을 두텁게 칠하고 칼로 긁고 붓로 태우는 등 다양한 기법으로 부조같이 입체감있는 화면을 만들어내는 작가다. 간이식 수술을 받고 투병한 그가 6년만의 개인전을 통해 선보이는 작품은 한결 화사하고 밝아졌다. 이집트 상형문자나 중국 고대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소, 토끼, 새 등 동물형상, 집, 산수 등이 그려졌다. 이번 전시회에는 중소형 작품 위주지만 100여 점의 작품도 포함해 총 23점이 걸린다. 문의 02-544-8481.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연술 교수 전주시립합창단 연주회 지휘

23일 한국소리문화전당

김연술(사진) 전남대 명예교수가 23일 오후 4시 한국소리문화전당 연주회에서 열리는 전주시립합창단 제87회 정기연주회에서 지휘를 맡는다. '6월의 풀꽃향기 음악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 김 교수는 슈베르트의 '자장가', '새야 새야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파랑새야, '바람의 손길'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김 교수는 광주시립합창단장, 한국합창총연합회 이사장, 전남대 예술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 Gift 캠페인. 영화관람권을 드립니다. 광주일보는 애독자 여러분께 매주 10명을 추첨해 영화표 2장씩을 드립니다. 퀴즈의 정답은 광주일보 광고면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에 위치한 이태리 가구 전문점 이름은 무엇입니까? ( ) \*참여방법: 매주(월~토) 발행된 신문 광고에서 힌트를 얻어 정답을 표시 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대상인원: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광고국 퀴즈담당자 앞 \*문의전화: 062)220-0521 "광고를 보면 돈이 보입니다"

파지매입 공장직거래 (1톤·5톤차량 환영) ● 단가(바라) : 도착도 105원/kg (부가세 별도) ● 시 행 일 : 5월 14일부터 문의 직통: 061-381-9933 061-380-0330~2 대한페이퍼텍(주)

가든식당비품, 개인지도, 건강상담. 「가든식당철거」개업연면적시설물태이 불변증고, 음향기(실내외겸용:인켈), 정수기(웰투웰), 뷔페용접시(200개), 삼겹살구이판(산품40개), 소형고(선입), 엘리베이터(2층용식용반용), 실아보일러(한성), 관정용모터(한일) 광주대원빌 T.011-611-2715

결혼정보, 대지매매. 1급가가결혼정보남여친동생지내차량확실한중매이름다른여인동시에어어함당하여백년가약맞으니행복하고도행복하다공무원사임각직정인성당합동6.25환전광주도병강행수 T.383-0330, 383-1670, 011-887-2934

리노삼성자동차 중흥지점. 과장이 전담/전대사태를 정성충신 017-601-1004 (전사) \*SM7(30~50만원 차, 부분무이자) \*SM5 및 LPG 차 (5.5% 저리할부, 50만원 할인) \*SM3(5년까지 5.5%저리) \*전차종 삼성카드 30~50만원 선할인

KIA 기아자동차 신사청대리점. 소장 강경정 (오페리스 커넥스) 로체 시승차상시대기!!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합니다. 062)372-8200, 011-604-9632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입·판매. 전액할부판매, 내수/수출차량매입, 위탁판매. ●승용/수입차/상용/특경/경비/산업차 ●전차종 할부판매 ●이전비/등록비/보험료포함 전액할부(돈없이 차량 구입) ●무이자10개월/대출이자 월 100만원당 4500~7500원 ●무상A/S 5개월 5,000KM/1년 20,000KM ●담임대출/최상의 서비스(엔진오일/맞선오일/세탁/카바)플록제공 ●전국최대규모 매장 보유/국내외차량 대량보유 ●중, 대형승용/수입차/RV/승합/경차 ●1톤~25톤화물차/덤프/크레인/포크레인 ●1톤개인용달/4.5톤개별화물 급급 ●고령차/신차 무조건매입 ●당일 매입이전/현금 즉시 지급 ●모든차량 구입 즉시 이전/탈소가능

차량분양(지입차주)모심. 25톤 냉동탑 05-07 3,900만 ~5,150만 ●고정금지급 월27일금무 유류비,통행료별도 5톤 냉동탑 07 6,900만 ~7,500만 ●고정금지급 월27일금무 유류비,통행료별도 동양로시스(주) 062-521-9300

현대자동차 중흥판매대리점. 신차상담.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신형 이반데 계약접수중!" 신타페 II 출시 계약중!! 서원오 011-615-7319